

코로나발 학력저하... 'AI 학습진단' 실력향상 도움될까?

주민직선 4기 임기를 시작한 광주·전남교육감이 '혁신'을 강조한 교육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교육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중도 성향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은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광주교육의 비전으로 삼았고, 진보 성향인 김대중 도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원격수업과 자율에 맡겨진 교육 방식에 중·하위권 학생들이 학업 동기를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5일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중3·고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에는 거의 모든 교과에서 보통학력 이상(3~4수준)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이 '비대면 수

학업성취평가서 '기초미달' 심화

광주지역 초6·중3·고2 두드러져

시·도교육청 AI 시스템 도입 추진

코로나 사태 문해력 향상 활성화

업 1년차'였던 2020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2020년 모든 교과에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학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학력격차가 회복되지 않은 셈이다.

성취도는 우수학력(4수준), 보통학력(3수준), 기초학력(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로 분류된다.

특히 고2 국어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64.3%로 2020년보다 5.5%p 더 떨어졌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19년과 비교해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확연히 높았다. 중3 수학은 대도시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61.0%, 읍면지역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42.2%로 19%p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고, 고2 학생도 각 68.3%와 55.4%로 13%p 가까이 차이가 났다.

광주 역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의 기초학력이 미달됐고, 중3 국어의 경우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4등급은 높은 비율이었으나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고, 상위권·중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도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한 학력결손

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개인에 맞는 AI 활용 맞춤형(수준별) 학습 시스템 등 도입으로 기초 기본학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실력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단위학교 학습 보조강사 지원 확대 ▲중학교 AI 전담교사 배치 ▲영재교육 대상 확대 ▲중학생 진로학업 설계서 제작 배포 ▲온라인 사이버 학습상담 앱(APP) 개발·운영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 사태로 낮아진 문해력 향상을 위해선 빛고를 권장도서 인증제를 도입해 독서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형 수업 아카이브와 수업 페스티벌을 통해 성취 기준에 충실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AI 학습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 진단의 경우 중학생용 진로학업설계서를 제작 배부해

자유학기제 운영과 연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도 AI 학습 진단 시스템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의 학습부진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력 진단과 보정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등교원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역량과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 내실화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학시스템을 구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였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수조사 방식의 평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인별 성취도 평가방식을 통해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평가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초등생 '뮤지컬 스푼 난타' 재능나눔

광양공공도서관에서 봄학기 평생교육강좌 '뮤지컬 스푼 난타'를 수강한 초등학생 12명이 최근 광양시 부영아파트 2차 경로당을 찾아 공연 봉사를 진행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김대중 도교육감 '학교교육력 제고 방안' 주문

취임 후 첫 정책업무 지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일일정책회의에서 "주민직선 4기 핵심 정책인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육감은 먼저, 현재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문직원 임용전 특별연수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학기 중에 이뤄지는 교사의 장기 간 연수로 인해 담임 및 교과교사 교체, 기간제 교사 채용, 학교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안목을 가진 교육전문직원 양성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수 운영의 기간과 시기를 조정해 학교교육과정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전문직원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교직원들의 미래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연수시스템을 구축 할 것을 요청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대, 지역청년 대상 온라인 박람회

전남대학교가 오는 17일까지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무박람회를 개최한다.

5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번 직무박람회에서는 ▲기업 현장자 LIVE 직무설명회 ▲온라인 인적성 직무능력검사 ▲진로취업 1대 1상담 ▲주요 직무 분석 온라인 강의 등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이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게 된다.

특히 기업현장자 직무설명회에는 네이버(개발), 한국전력공사(송배전), 안국약품(QC),

카카오뱅크(백엔드 개발), Google Cloud (Technical Account Manager), 삼성전자(연구개발), HCC엔터테인먼트(그래픽아트디렉터) 등 14개 직무 현장자가 직접 출연해 전문사회자와의 토크쇼를 통해 학생들이 사전 및 실시간 등록한 질문에 쌍방향 소통한다.

또한 기업채용 과정에 실제 활용되는 인재평가 시스템을 제공해 온라인 직무능력검사 및 인적성 검사를 체험할 수 있게 했으며, 취업전략 특강을 비롯 1대 1진로설정을 위한 취업상담도 가능하다. /최환준 기자

호남대 RIP사업단, 교육혁신프로그램 개발회의

호남대학교 지역혁신플랫폼사업단(RIP 사업단)은 최근 교내 창조관 2층 사업단 회의실에서 대학교육혁신을 위한 개방형과 맞춤형 대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회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는 정제평 사업단장을 비롯해 김은아 취창업지원단장, 강미영 정보통신학과 교수, 해성준 진로개발센터 담당, 황자욱 팀장 등 5여

명이 참석했다.

김 단장은 "급격한 산업변화에 따라 대학이 꼭 지원해야 할 분야로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광주전남은 제조분야 비중이 높아 제조 AI분야의 통합적 인재양성이 꼭 필요하며 효과 높은 AI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동강대, 학교급식 관계자 직무연수

동강대학교가 광주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관계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5일 동강대에 따르면 외식조리제빵과는 오는 8일까지 교수연구동 5층 융복합 쿠킹클래스에서 '2022년 학교급식 관계자 직무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학교급식 영양사와 조리사, 영양교사가 참여해 ▲냉매밀 ▲그릴야채샌드위치 ▲두부함박스테이크와 버섯리조토 ▲그릴야채까프레제 등을 만들며 건강한 녹색 식생활 활성화를 위한 레시피를 개발한다. 또 조리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습 교육도 받는다. /최환준 기자

M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2 조사를 합니다.
-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design by 소스컴퍼니